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LOVEBOAT, TAIPEI

가제 : 사랑의 유람선

저자 : Abigail Hing Wen

출판사: Harper

발행일: -

분량 : -

장르 : YA 소설



- * “첫사랑과 가족의 의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 낯선 시간을 감동적으로, 솔직하게 그린 이야기”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소설 『AN EMBER IN THE ASHES』의 작가 사바 타히르
- * “반항, 로맨스, 복잡한 가족 문제에 강렬히 돌진하는 소설. 놀라우면서 독창적이고, 영리하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시리즈 『CARAVAL』의 작가 스테파니 가버

‘헬리콥터 부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디자인’하는 시대, 그 정해진 루트를 꼬박꼬박 따르는 아이들도 있지만 전혀 다른 길로 가려는 아이들은 부모와 큰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과도한 개입이 부모 개인의 커다란 희생을 동반할 경우, 쉽게 비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된다. 작가는 중국인으로 미국에 살면서 직접 경험한 이 쉽지 않은 문제를 대학 진학을 코 앞에 둔 주인공 에버렛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준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의사로 키운다는 목표가 다 정해진 에버렛이 자라면서 춤과 음악에 매혹되고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갈등하는 과정이 비슷한 고민에 고민에 빠진 수십 명의 또래 인물들과 함께 현실적으로 그려진다. 특히 겉모습 외에 속은 전형적인 미국인인 에버렛은 이민 2세대, 3세대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오해와 차별,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유쾌하게 드러낸다. 여기에 첫사랑의 풋풋함도 가미된 따뜻하고 인상적인 소설이다.

새해가 되자 에버렛이 지원했던 대학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알리는 정중한 편지들이 우편함에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오하이오 주로 건너오기 전까지 푸젠성에서 의사로 살았던 아빠의 뒤를 이어받아 무조건 크면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계획은 에버렛이 걸음마를 떼기도 전부터 확정된 터라, 유명한 의과대학에는 전부 지원서를 넣었다. 안타깝지만 합격하지 못했다는 통보가 줄줄이 이어지고, 겨우 한 의과대학에서 입학 소식이 전해오자, 에버렛은 부모님이 늘 바라던 대로 역시 의사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체념한다. 하지만 에버렛이 진심으로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곳은 따로 있었다. 부모님 몰래 지원서를 넣은, 한 예술대학의 댄스 학과였다.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외우고, 익히고, 공부했던 과목들은 전부 갖은 애를 다 써야 했던 반면 춤은 자동으로 흘러 나오듯, 음악만 들으면 몸이 깨어나는 것처럼 에버렛에게는 가장 익숙한 삶의 일부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본격적인 입시 준비로 이 행복한 춤을 즐길 시간이 부족했던 에버렛은 지원서에 다양한 활동이 들어가면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해준 입시 상담 선생님의 권고 덕분에 그나마 계속해서 춤 연습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딱 붙는 화려한 복장으로 질게 화장을 하고 춤을 추는 건 ‘무식한 애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확고히 믿는 엄마는 늘 못마땅한 눈으로 그런 에버렛을 쏘아보고, 단속했다. 학교 댄스 팀과 지역 행사에 초청 받아 대규모 퍼레이드에 나갔을 때는 그 많은 인파가 보는 앞에서 엄마 손에 붙들려서 끌려 나온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춤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에버렛은 대학 원서까지 넣은 것이다. 급기야 그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까지 오자, 에버렛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알리 없는 부모님은 에버렛이 대학 입학 전 마지막 여름을 알차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뜻밖의 여행을 준비한다. 대만에서 8주간 진행되는 ‘중국어 캠프’에 에버렛 몰래 등록을 해버린 것이다. 방학 내내 실컷 춤을 추려고 계획했던 에버렛은 출발을 단 며칠 앞두고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엄마에게 분통을 터뜨리지만, 뼈뚫한 형편에 자신을 이 캠프에 보내려고 엄마가 아끼는 흑진주 목걸이까지 팔았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화를 내지도 못한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수십 년 전, 엄마가 지금 에버렛 자신보다도 어릴 때 사준 그 목걸이가 얼마나 귀중한 물건인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난생 처음 대만으로 떠난 에버렛은, 예상치 못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란다. 자신처럼 부모 등쌀에 못 이겨 서툰 중국어 실력을 키워야 하는 재미 없는 아이들과 서예나 하고 지루한 역사나 공부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캠프는 일명 ‘사랑의 유람선’으로 불릴 정도로 그 동안 못해 본 연애를 실컷 하고 흥청망청 술도 마시면서 놀기로 유명하다는 사실, 그리고 함께 8주를 보내야 하는 아이들 속에 에버렛이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은 이름, 릭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에 이민 온 중국인들은 물론 본토에서도 ‘영재’ ‘경이로운 소년’으로 소문이 자자할 만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릭은 에버렛의 부모님이 제발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고 늘 부러워하고 비교했던 아이였다. 에버렛이 아무리 성적이 올라도 모든 기준은 릭에게 맞춰져 있었기에 항상 더 노력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어야했던 원인이기도 했다. 그런 릭이 예일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사랑의 유람선’ 캠프에 찾아온 것이다. 방학 때 세운 계획이 모두 어그러진 판국에 이 캠프에서만 자유롭게 놀기로 단단히 마음 먹은 에버렛은 그 동안 이름만 겨우 알던 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둘 사이에 뜻밖의 감정이 싹튼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와 삶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 어른의 문턱에 도달한 아이들이 겪는 정체성의 문제, 복잡 다난한 가족간의 갈등과 첫사랑을 무겁지 않은 톤으로 잘 풀어낸 재미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애비게일 힝 웬(Abigail Hing Wen)은 하버드 대학교와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실리콘 밸리에서 변호사로 살고 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

제목 : THE SECRET STARLING

가제 : 스타링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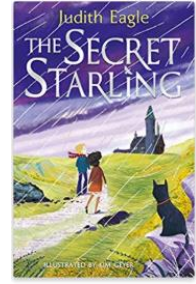
저자 : Judith Eagle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9년 5월 2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사랑스러운 인물, 놀라운 동물들이 가득한 맛깔 나는 모험 이야기” - 『Letters from the Lighthouse』의 작가 엠마 캐롤

* “방대한 모험, 비밀의 정원부터 노엘 스트리트필드의 작품까지 클래식 소설들을 떠올리게 한다” - ‘더 북셀러(The Bookseller)’ 에디터 피오나 노블

끝이 보이지 않는 요크셔의 드넓은 평원 한가운데 우뚝 홀로 솟아 있는 브레이스웨이트 저택에서 지루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료하고 심심하게 살던 클라라 스타링에게 한 꺼번에 엄청난 일들이 몰아친다. 한 집에 사는 유일한 가족인데 애정은 고사하고 약간의 관심도 내비치지 않는 삼촌 대신 클라라의 허한 마음을 채워주던 사람들이 전부 쫓겨나더니,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집에서 과외를 받도록 하던 삼촌이 얼른 짐을 싸라고 이야기한 건 시작에 불과했다. 어디로, 왜 가는지도 설명해주지 않고 클라라와 허름한 짐 가방을 차에 실은 삼촌은 평원을 넘어 마을에 도착하자 클라라만 내려놓고 가버렸다.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이 떠난 삼촌이 돌아오지 않으리란 사실을, 주머니에서 돌돌 뭉쳐진 거액의 지폐 뭉치를 발견한 후에야 깨달은 클라라는 너무 심심해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랬던 기도가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이루어진 것에 잠시 할 말을 잃는다. 그러나 클라라에게 ‘집’은 오직 한 곳, 좋은 기억도 별로 없는 브레스웨이트 저택뿐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일단 집에 가서 삼촌을 기다리기로 작정한 클라라가 걸어도, 걸어도 수풀과 나무만 펼쳐진 머나먼 길을 지나 마침내 굳게 닫힌 저택 현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손님이 와 있었다. 고양이를 품에 안은 피터라는 소년이었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도 클라라의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고 평범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렇게 난데없이 버려질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텅 빈 식당에서 무서울 만큼 조용한 공기 속에 홀로 아침밥을 먹고, 거의 매달 바뀌는 가정교사와 오전 내내 지루한 공부를 하고, 또 혼자 점심을 먹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저택 주변을 한참 산책하고, 하루 중 가장 괴로운 삼촌과의 면담 시간이 되면 매번 큰 시험이라도 앞둔 아이처럼 떨리는 가슴을 안고 삼촌의 서재로 들어가 오늘 하루 배운 것들을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삼촌 앞에서 이야기하고, 거의 매일 같은 메뉴로 차려진 저녁을 먹고 나면 책을 읽다가 자는 것. 그것이 클라라의 일상이었다. 집에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었다. 아이들은 절대 소란스러우면 안 된다는 철칙을 강조해온 삼촌 때문에 복도를 걸을 때는 항상 까치발로 다녔고,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과연 있거나 한지 의심스러운 차갑고 냉정

한 삼촌의 요구 때문에 식탁에 오르는 메뉴도 거친 빵과 잼, 달걀, 감자 정도가 전부였다. 가정교사는 세상에서 가장 지겨운 과목 외에 다른 건 클라라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다. 이 적적하고 괴기스럽기까지 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저택을 떠나는 교사들은 삼촌을 아동 학대 죄로 고발해야 한다며 언성을 높이곤 했었다. 그래도 가끔, 정말 가끔 삼촌이 외출을 하면 마음씨 좋은 요리사 할머니와 솜씨 좋은 집사 아저씨가 클라라에게 재미 있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못질하기, 나무 다듬기 등 책에 나오지 않는 흥미로운 기술을 가르쳐주기도 한 덕분에 클라라는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가정교사가 오지 않더니, 유일한 버팀목이던 요리사 할머니와 집사 아저씨마저 떠나버렸다. 삼촌이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다며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집안 곳곳에 있던 가보와 그림들이 자꾸 하나씩 사라질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나, 싶었지만 클라라 자신마저 그렇게 단번에 길에 버려질 거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다. 먼 길을 걸어 다시 돌아온 저택 현관 앞에는 ‘집 팝니다’라는 큼직한 알람판이 꽂혀 있었다. 하루 아침에 갈 곳이 없어진 클라라는 ‘스텔라 아줌마’라는 사람이 보냈다고 하며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터와 함께, 언제 팔릴 지 모르는 저택에서 일단 지내기로 한다.

피터는 자신을 키우고 돌봐준 할머니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 고민하자, 스텔라 아줌마가 브레스웨이트 저택 이야기를 꺼냈다고 설명했다. 클라라의 삼촌이 오래 전부터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했던, 클라라의 엄마와 절친한 친구라 삼촌도 잘 안다고 했다는 것이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고 왜 엄마 대신 자신을 키우지 않는지 클라라는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삼촌은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래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엄마와 가까이 지냈다는 사람이 보냈다는 것만으로 클라라는 피터와 고양이 스톡웰에게 왠지 마음이 갔다. 비록 저택에는 먹을 것도 거의 없고, 파이프는 여기저기 망가져서 물이 새고 난롯가 외에는 몸을 따뜻하게 데울 곳도 없지만 둘은 요리사 할머니가 남겨둔 달걀과 감자로 연명하며 하루하루를 함께 견딘다. 삼촌이 있을 때는 까치발로 걷느라 늘 조심해야 했던 곳들을 마음껏 뛰어 다니고 출입 금지 구역에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구경하던 어느 날, 뼈격대는 마룻장 아래에서 의외의 물건이 발견된다. 낡은 발레 슈즈였다. 삼촌과 전혀 안 어울리는 이런 물건이 왜 이렇게 숨겨져 있었을까? 그런데 얼마 후, 이름만 들었던 스텔라 아줌마가 직접 저택에 찾아오면서 클라라와 피터는 믿기 힘든 진실을 발견한다. 어쩌면 이 모든 사태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텔라로부터 시작됐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 더 나아가 클라라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피터 할머니의 병도 어쩌면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이 일으킨 범죄일지 모른다는 섬뜩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삼촌과 스텔라가 맺은 모종의 약속, 얼굴조차 모르는 클라라 친부의 등장,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독살 의혹 속에서 용감하게 맞서는 클라라의 이야기가 흡입력 있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주디스 이글(Judith Eagle)은 스타일리스트, 패션 에디터, 특별 기사 전문 작가로 활동하다 현재 중학교 사서로 일하고 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